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재산과 보물이 집안에 넘쳐나려면

원각경(圓覺經)의 비밀(秘密)

삼주호법 위태존천 동진보안보살도

서양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유명한 속담 중에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Money makes the world go around)"가 있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빈부 격차는 사람의 삶과 행복의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인정되고 있다.

가난과 풍요는 사람들의 행불행을 전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필자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동남아국가의 사람들처럼 낙천적이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북미나 유럽, 한중일에서는 본 적이 드물다.

필자가 스리랑카 수도 항구도시 콜롬보에서 잠시 지낼 적에, 빅토리아 파크(영국여왕 빅토리아를 기념해 지음) 공원에 자주 산책을 나간 적이 있었다.

넓디넓은 공원 한 쪽 켠에, 시골에서 올라와 가족전체가 함께 살며 거지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항상 밝게 웃는 모습으로 누더기옷을 간신히 걸친 아이들이 내게 와서 돈을 요구하곤 했다.

비가 오면 커다란 종이박스를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비닐을 씌운 후, 서너 명이 그 안에서 잠자고, 아침이면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겨서 단정한 교복을 입혀 학교를 보낸다. 아이들은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학교에 갔다가 학교가 파하면 다시 돌아와 누더기옷을 입고 공원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한다.

보안보살과 화엄신중이 주인공인 〈원각경〉 수지독송은 삶을 풍족하게 해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얼마나 밝은 얼굴로 웃으며 다니는지 내가 거지인지 그들이 거지인지 가끔 분간을 하기 힘들 때가 많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스리랑카 국민은 전 세계에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느끼는 나라 3위안에 든다고 한다. 2005년 당시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고졸 초봉이 5만원 정도였고, 시내버스운전사 월급이 8만원,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8만원 정도였으니, 한국의 같은 직무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월급의 20분의 1도 안되는 월급을 받아도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1% 부자들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에 열등의식을 앓고 있다. 사실 출가하여 비구계를 받은 우리 스님들은 비구라는 명칭이 걸사(乞士), 즉 얻어먹고 사는 선비정도의 의미라는 것을 잘 알기에 마음의 풍족함으로 살지, 통장이 빵빵한 느낌으로 살지는 않는다.

'삼주호법 위태천존 동진보안보살(三洲護法韋馱尊天童眞普眼菩薩)'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보안보살과 화엄신중을 주인공으로 하는 〈원각경(圓覺經)〉의 제12현선수보살장(賢善首菩薩章)에 보면, 현선수보살이 석가세존께 여쭙기를, 〈원각경〉을 수지독송(받들어 지니고, 읽어 외우는)하고, 널리 유포하는 공덕에 대해 묻자,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유포하는 공덕은 칠보(七寶)를 삼천대천세계에 쌓아 보시하거나, 백천개 항하(恒河, 갠지즈강)의 모래알 숫자보다 많은 이들을 아라한도를 얻게 한 공덕보다 수승하다고 설하신다.

이후에 화수금강(火首金剛)과 최쇄금강(摧碎金剛), 니람파금강(尼藍婆金剛)과 팔만금강과 그 권속들이 부처님께 서원하되, 누구든 말세중생들이 이 대승경전을 받아 지니는 자가 있으면, 그를 마땅히 수호하여, 눈을 지키듯 하며, 그 수행도량을 무리지어 새벽부터 황혼까지 수호하고, 그 집엔 영원히 재앙, 장애가 없게 하겠으며, 항상 그 집안엔 재산과 보물(財寶)이 풍족하여 궁핍하거나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서원한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세세생생 〈원각경〉을 수지독송해 깨달음에 이르러 모든 중생을 제도할 때까지 삶과 생활에서 궁핍함을 모르고, 넉넉하여, 여유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린다.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많이 나눠드리시기를.

나무 석가모니불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판화로 만나는 아시아 각국의 용

고판화박물관, 5월 31일까지 아시아 흑룡판화 100선 특별전

한선학 고판화박물관 관장이 5조 용판화를 들고 흑룡전시전을 설명하고 있다.

흑룡의 해인 임진년을 맞아 아시아 각국의 용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1월 22일~5월 31일 '비상하는 우리의 꿈-아시아 흑룡 판화의 세계전'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용을 소재로 한 이번 전시는 한국과 중국의 고판화 각 30점, 티베트·몽골·네팔과 일본의 고판화 15점 씩을 비롯해 고판화 자료·서책 등 총 100점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고판화박물관의 용 관련 소장품 100점 중 세계에서 가장 큰 연화(年畵) 목판인 '어룡변화(魚龍變化)도'가 눈길을 끈다.

청나라 말기에 제작된 이 목판은 길이 210㎝·폭 70㎝·두께 4㎝ 크기로 현존하는 중국 목판으로는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긴 널빤지 2쪽을 상하로 결합한 구조로, 머리가 없는 두드린 못을 두 나무 사이에 넣고 이었다.

'어룡변화도'는 남아와 여아가 잉어를 껴안고 있는데 남아의 잉어가 하늘의 운룡으로 변해 승천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여자아이의 머리 위에는 '장명부귀 금어만당(長命富貴 金魚滿堂)', 남자아이 그림에는 '어룡변화(魚龍變化)'란 글씨가 적혀있다. 남아의 경우 부귀·장수를 통해 출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석학 관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연화인 어룡변화도를 보며 임진년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이 도약하는 한해로 만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용문양은 우리 선조들이 대문이나 집안에 붙여 한 해의 불운을 막고 집안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했던 세화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흉배, 책표지를 박아내는 능화판의 문양으로 이불보를 찍어내는 보판 등 생활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중국·티베트 등에서는 집안이나 자손들의 소구소망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판화를 찍어 대문이나 집안에 연화를 붙였다. 또 고원지대에 바람에 펄럭이면서 발원자의 소원을 실어 보내는 타르초에도 주요 소재로 용문양이 사용됐다.

전시장에는 명·청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주도, 티베트 사람들이 하늘의 신에게 기도하는 깃발인 타르초 운용문 목판 등도 전시한다. 또 채색 기법을 활용한 일본의 용문양 작품도 볼 수 있다. 먹을 활용해서 찍어 자연스럽게 흑룡으로 표현됐으며 흑과 백으로 표현된 판화의 특징으로 인해 강렬한 소망이 표출되는 듯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어룡변화도

어룡변화(魚龍變化)

하늘에 한 마리 운룡이 있으며, 수중에 한 마리 잉어가 있는 도안. 또는 용머리에 잉어의 몸통이거나, 잉어 한 마리가 용문 위로 뛰어 오르는 모습. 잉어가 용으로 변해 출세한다는 의미.

고대에는 잉어가 용문(龍門)에서 승천한다는 전설이 있다. 잉어가 용문을 도약하여 올라가면 용으로 변화하지만, 용문을 뛰어넘지 못하면 이마에 점이 생겨나 되돌아간다고 했으며, 황하의 잉어 가운데 이마에 홍색의 점이 있는 잉어가 많은데 모두 용문을 뛰어넘지 못한 잉어라고 전해진다. 어약용문은 청운의 뜻을 이루어 비상한다는 의미이다.

금어만당(金魚滿堂)

금어(金魚)로 표현되는 금붕어는 금여(金餘), 즉 재산이 넉넉하다는 의미다. 물고기 문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잉어이다.

잉어가 변하여 용이 되는 모습을 그린 〈어변성룡도〉와 물 위로 힘차게 뛰어 오르는 잉어 모습을 그린 문양은 출세의 염원을 담고 있다. 또한 잉어는 자손 번창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잉어의 머리를 남근 모양으로 묘사한 문양을 보아도 그런 뜻을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한 번 알을 낳으면 수천수만의 새끼를 볼 수 있는 잉어의 생식 능력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중앙박물관, 불교문화강좌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흥선)은 스님·불자·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불교미술 강좌를 개설한다. 강의는 2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총 10주에 걸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진행된다.

강좌는 불교미술개론, 고려불화, 석등, 전통탁본기법, 불교공예전반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참여자에게는 조계종 교육원에서 인증한 승려연수교육 인증서가 수여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흥선 스님이 직접 강의에 나선다. 흥선 스님(사진)은 금석학 전문가이자, 前 직지성보박물관 관장, 현재 문화재청 유형문화재위원으로 종단 내에서 손꼽히는 문화재 전문가다. 또한 불교문화재와 답사기행에 대한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2010년부터 3회에 걸쳐 시행한 강좌는 종단 내 스님과 재가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올해에는 사회전반의 불교문화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종교와 관계없이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불교미술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신청은 불교중앙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buddhism.or.kr)와 전화접수로 가능하다. 02)2011-1956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